

장만채 교육감 구속

억대 금품 수수·업무추진비 횡령 등 혐의

진보성향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시 역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5일 밤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장 교육감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6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동기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받은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남에서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기는 2001년 10월 전남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역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민선 3대 정영진 전 교육감에 이어 11년 만이다.

장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 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취임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생 2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각각 3100만원과 29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장 교육감이 친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쓴 돈이 청탁의 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친구 부인(교사)에게 전보인사 편의를 제공하고, 자녀의 특성화 중학교 입학 청탁 등에 장 교육감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또 산학협력업체로부터 2차례 받은 학술기금 4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장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시인 지난 2007년 11월 관사구입비 1억5000만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는 데 사용한 뒤 2010년 6월 학교측에 반환한 것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장 교육감은 이밖에 교과부가 고발한 대외활동비(7800여만원) 부당사용과 교직원 기성회 수당 인상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은 벌금 출석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전남 도민과 교육가족께 죄송하지만 검찰에서 말하는 것처럼 뇌물은 전혀 아니다”고 반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철쭉 만개한 교정

26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동신여고 교정 곳곳에 붉은 용단을 깔아놓은 듯 철쭉이 만개했다. 학생들이 교정을 걸으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제 투성이 영광원전

잡은 고장에 잇단 납품 비리까지

잡은 고장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영광원자력발전소에 고질적인 납품 비리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직원들은 업체로부터 원전 중요부품을 납품받으면서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뇌물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납품받은 부품이 고장의 원인이 됐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관정)는 26일 “지난해 영광원전에 근무할 당시 한 납품업체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계약을 체결한 이 부품은 국내 한 납품업체가 지난 2009년 고

리원전 허모(55)씨로부터 프랑스 기업체가 만든 ‘밀봉 유닛’을 넘겨받아 만든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부품 밀반출과 함께 이 납품업체가 만든 부품을 구매해 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바 있다.

밀봉 유닛은 원자로 출력을 측정하는 원자로 중성자 검출기를 밀봉하는 부품으로, 원자로의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안전과 관련한 중요 장비 가운데 하나다.

검찰은 이날 초 납품업체로부터 탱크 내 보냉제, 각종 시험장치 등을 납품받으면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영광원전 이모(44)과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납품비리와 관련 구속된 원전 직원 4명 가운데 영광원전 당시 비리와 관련된 직원은 2명으로, 이번 납품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원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술력이 검증된 일부 업체만이 납품이 가능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아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구본진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납

품받은 부품의 이상 여부는 검출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납품비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는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모두 6기가 운영되고 있는 영광원전은 1호기가 지난 1986년 하반기부터 26년째 가동되는 등 노후 문제가 심각해 부품 납품비리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영광원전은 지난해까지 모두 1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호가 가동 이후 매년 6~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4기가 가동되고 있는 고리원전 282건에 이어 국내 원전 5곳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납품된 부품은 지난 2010년 해당업체가 자체 개발, 한수원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개발 선정 품목으로 지정됐고, 특허청의 특허를 취득한 제품”이라며 “제품개발 완료 후 제3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내진·내압 성능 등을 인정받았으며, 외국 부품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제품이격도 경제적이다”고 주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검역주권 포기했나”

美 광우병 사태 정부 대응 비난 확산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통상마찰을 우려해 검역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산일 미국 쟁소의 광우병 발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강화’ 입장을 밝히자 정치권에선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4·5면>

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날 민생공약실천특위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도 “정부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수입원생조건 부칙 6항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과 윤근순·박원석 당선자는 이날 ‘광우병 발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소고기 전면 재협상으로 불공정한 수입위생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잃어버린 검역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2면으로 계속>

광주 U대회 엠블럼·마스코트 공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의화)는 26일 대회 공식 엠블럼인 ‘빛의 날개<사진 왼쪽>’와 마스코트 ‘누리비<오른쪽>’를 공개했다.

조직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엠블럼데이’를 갖고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은태 광주시장과 지오반니 메를로 국제스포츠기자연맹(AIPS) 회장,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종량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 송기진 광주은행장을 비롯



한 대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엠블럼 ‘빛의 날개’는 유니버시아드의 상징인 U형상을 따라 날개를 펼치는 모습으로, 한계를 넘어 날아오르는 선수들의 열정, 스포츠의 역동성, 세계인의 화합 등을 빛의 도시로서 세계로 도약하는 광주의 비상을 조화시켜 표현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제24회 안동권시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안동권시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권문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4월 29일(일) 오전 10시~ 오후 4시
- 장 소 : 광주첨단체육공원(광주광역시 북구 오동동 113번지)
- 연락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3-77(유일 연삭기내)
- 전 화 : 062-953-0133 FAX 062-951-4551 권총화 회장 010-3601-1210 권시현 회장 010-9883-6612

안동권시청 광주 중친회 회장 권 총 화
안동권시청 광주 청·장년회 회장 권 시 현

2012 원도 장보고 축제

Wando ChangPoGo Festival

빙그레 웃는 섬! 원도로 떠나는 장보고 시간여행!

2012. 5. 4(금) - 5. 6(일) / 3일간 원도해변공원, 장도청해진유적지 등

장보고 테마 프로그램

장보고 역사체험 프로그램

웃음 테마 프로그램

건강원도 마케팅 프로그램

! 원도장보고축제추진위원회 061)550-5411~2 www.wando.go.kr | 네비게이션 길 안내 전라남도 원도군 원도읍 가용리 1100번지

주최 원도군 주관 원도장보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농협중앙회원도군지부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